

“KIA 준비 잘했다... 마지막 게임하는 팀 될 것”

김기태 감독

마운드 부상, 신예 선수들에 기대 세 외국인 선수 적응력 뛰어나 선수들 팀플레이 하는 법 터득 올 주목할 선수는 투수 김기훈

“추위도 마지막까지 야구를 하겠다.” KIA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이 2019시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 감독은 홈에서의 마지막 시범경기가 열린 지난 17일 취재진과 자리를 갖고 올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감독은 “KIA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위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승을 향한 도전을 언급했다.

우승 목표 뒤에는 선수들의 달라진 마음가짐과 착실한 준비가 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2017년에 영광도 봤고, 지난해에는 되겠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안 돼서 아쉬움도 남았을 것이다”며 “선수들이 왜 안 됐는지 그런 것을 아는 것 같다. 지난해 외일드카드로 (포스트 시즌에) 나갔지만 아쉬웠다. 어떤 게 더 좋은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아닌 모두의 힘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 같다. 그게 협동심이다”고 말했다.

또 “팀에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팀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우려와 달리 시범경기를 통해 2019시즌 준비도 잘 이뤄져 가고 있다. 마운드에서 줄부상이 있었지만 신예 선수들이 성장세를 보이며 전력에 안정감을 더했다.

김 감독은 “캠핑 때 준비과정에서 부상도 있고 실점도 많이 했는데 준비 과정이었다”며 “시범경기 동안에 대량 실점 안 했다는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다. 마운드가 젊어졌기 때문에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기대도 된다”고 설명했다.

세 외국인 선수의 적응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 감독은 “세 선수 모두 (한국이) 처음이지만 월런드는 일본서 2년간 생활해서 생활, 환경, 음식에 빨리 적응했다. 터너, 해즐베이커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다. 외국인 선수 문화 오래돼서 지인들에게 많이 알아보고, 적응 문제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다”며 “기량 면에서는 노력도 많이 하고 한국야구에 대한 습득하려는 부분이 좋다. 안정적이다. 앤서니 코치가 선수도 해봤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하고 한국 야구에 대한 예의와 게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낯선 투수들의 구질 등에 대한 적응 과정이라고 언급했던 해즐베이커도 이날 3루타 포함 3안타를 터트리면서 김 감독을 웃게 했다.

김 감독은 주목할 선수로 ‘좌완 루키’ 김기훈의 이름을 꼽았고, ‘마무리’로는 김윤동을 언급했다.

지난 주말 경기를 통해 올 시즌 주전 라인업의 모습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김 감독은 개막전 리허설로 16일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우고 김주찬(1루수)-안치홍(2루수)-최형우(좌익수)-나지완(지명타자)-해즐베이커(중견수)-이명기(우익수)-한승택(포수)-최원준(3루수)을 라인업에 배치했다. 17일에는 터너와 김민식이 배터리를 이뤘다.

김 감독은 “주말 두 경기에 나간 멤버가 주전 라인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베테랑들은 19일 경기로 준비가 끝날 것이다. 시범경기 마지막날 부상 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은 백업으로 경기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KIA는 19·20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 마지막 두 경기를 치른다. 이후 21일과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며 마지막 점검을 한다.

김 감독은 “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고 우리도 바라는 게 확실하다. 준비 잘했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 그라운드 기록 쏟아진다

최형우, 10년 연속 20홈런...이범호 2000경기 출장·350 홈런 눈앞 손승락, 최다 세이브 -16·역대 최초 10년 연속 두자릿수 세이브 도전

봄을 기다렸던 KBO리그가 오는 23일 대안원의 막을 올린다.

네 팀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창원NC파크도 개장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팬들을 기다린다. 선수들의 기록 행진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파들 대거 KBO리그에 뛰어든다.

KT 이대은, 삼성 이학주, SK 하재훈 등 해외 유턴파 신인선수들이 팀의 즉시 전력감으로 꼽힌다.

KBO리그는 최근 두 시즌 ‘순수 고졸 신인’인 키움 이정후와 KT 강백호가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들의 뒤를 이을 ‘무서운 신인’으로 KIA 김기훈 LG 정우영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베테랑들의 도전도 이뤄진다. 롯데 손승락은 최다 세이브 기록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까지 262세이브를 기록한 그는 오승환의 최다 세이브인 277세이브에 16세이브만을 남겨 두고 있다. 여기에 역대 최초로

10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 8년 연속 20세이브 달성도 노린다.

800경기 출장에 28경기를 남겨둔 한화 정우람도 4번째로 6년 연속 10세이브에 도전한다. 또 SK 조중천에 이은 통산 두 번째 10년 연속 50경기 출장 기록도 기대된다.

‘70년대 생’인 삼성 박한이와 LG 박용택의 기록행진도 계속된다.

지난해 삼성 양준혁의 2318안타를 넘어서며 통산 최다 안타를 기록했던 LG 박용택은 2400안타에 16개를 남겨두고 있다.

박한이는 개인 통산 최다 경기 출장을 노린다. 2001년 삼성 입단 이후 원클럽맨으로 2097경기에 나온 그는 올 시즌 127경기에 나서면 종전 최다인 KIA 정성훈의 2223경기를 넘어선다.

새로운 동지에서 기록을 이어가는 선수들도 있다. 두산에서 새 시즌을 맞는 배영수, 권혁이 그 주인공이다. 배영수는 개인 140승(현역선수 최다승)에 3승, 500경기 출장에 38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육성선수 신분으로 5월 1일부터 출장이 가능한 권혁은 개인 최다 홀드를 향해 뛰고 있다. 현재 146홀드로 삼성 안지만의 177홀드까지 32홀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홈런왕 두산 김재환을 필두로 거포들의 홈런쇼도 시작된다. SK 최정은 4년 연속 30홈런, 키움 박병호는 리그 최초로 4년 연속 40홈런을 노린다.

최형우는 7년 연속 20홈런 타자의 꿈을 꾸고 있다. 300홈런에 4개를 남겨둔 롯데 이대호도 홈런왕 경쟁에 나선다.

KIA 이범호는 2000경기 출장과 함께 개인 통산 350홈런 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화 김태균은 15년 연속 10홈런에 도전한다.

중견수로 자리를 옮긴 한화 정근우를 비롯해 각 팀 감독들의 안타, 타점 기록 달성도 예상된다.

정근우는 14년 연속 100안타, KIA 최형우와 키움 박병호, 롯데 이대호는 리그 최초로 6년 연속 100타점에 도전한다. 최형우와 이대호는 NC 나성범과 함께 5년 연속 170안타 기록도 노리고 있다.

KIA 김기태 감독과 LG 류종일 감독은 1000경기 출장을 기다린다. ‘초보 감독’ KT 이강철 감독, NC 이동욱 감독과 그라운드로 복귀한 SK 염경엽 감독, 롯데 양상문 감독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화력 강화

브라질 공격수 윌리안 영입 펠리페와 투톱...공격 분산 효과 기대

프로축구 광주FC가 브라질 특급 공격수 윌리안을 영입해 화력을 강화했다. 광주는 18일 “그리스 1부 리그서 활약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윌리안 (25·Willyan da Silva Barbosa)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윌리안은 토리노FC (TorinoFC·이탈리아 세리에A) 유스 출신으로 비토리아 세투발 (Vitoria Setubal·포르투갈 1부), 파나이틀리코스 (Panetolikosac·그리스 1부) 등 유럽 1부 리그에서 뛰면서 138경기 15골을 기록했다.

2014-2015시즌에는 나시오날 (Nacional C.D·포르투갈 1부)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27·스타드 드 랑스)과 6개월간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170cm·62kg의 날렵한 체격을 지닌 윌리안은 빠른 스피드와 1대1 돌파, 드리블이 장점이다. 화려한 개인기와 다재다능함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 모두 소화가능하다. 또 전방 압박과 연계플레이가 뛰어나다.

특히 지난 12일 파나이틀리코스 소속으로 폴타임 (1득점)을 소화하는 등 곧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는 윌리안의 영입으로 193cm 장신인 펠리페와 ‘빅앤스몰’ 조합을 구성하게 됐다. 펠리페에게 집중된 공격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는 개막 후 세 경기에서 7골을 몰아넣으면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7골 중 펠리페가 만든 골은 모두 5골. 여담과 김진환이 남은 두 골을 책임졌다.

앞선 부산 아이파크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도 펠리페는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경험 부족의 ‘무키’ 이희군이 절호의 득점 기회를 놓쳤고, 여담의 목격한 슈팅은 몇 차례 골키퍼에 막혔다.

경기가 끝난 후 박진섭 감독도 “펠리페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골을 넣어주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격 다각화에 아쉬움을 남겼던 광주는 유럽리그에서 활약한 세 외국인 선수를 합류시키면서 ‘승격 도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전, 생존경쟁

축구대표팀 파주 소집 훈련

‘세대교체의 생존 싸움에서 살아남아라!’

파울루 벤투 (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파주NFC (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여 3월 A매치 2연전 (볼리비아·콜롬비아) 준비에 나섰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8일 오후 파주NFC에서 소집돼 22일 볼리비아 (오후 8시·울산문수구장)와 26일 콜롬비아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와 평가전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한다.

지난 11월 27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벤투 감독은 3월 두 차례 평가전을 신호탄으로 9월부터 시작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대비한 세대교체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대표팀의 허리 역할을 맡아온 기성용 (뉴캐슬)과 구자철 (아우크스부르크)이 태극마크를 반납하면서 벤투 감독은 중원에서 이들의 역할을 대체할 자원들에 대한 ‘현미경 관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벤투 감독은 지난 1월 아시안컵을 통해 지난해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때 좋은 활약을 펼쳤던 황인범 (대전), 김민환 (부산), 김민재 (전북), 이승우 (엘라스베로나) 등 1995-1998년생의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벤투 감독은 3월 평가전에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18세 20일’의 이강인 (발렌시아)을 전격적으로 발탁해 A대표팀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또 22살의 박승호 (지로나)에게도 첫 A대표팀 승선을 선물하며 ‘젊은파’들의 경쟁 무대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투 감독은 1992년생인 ‘캡틴’ 손흥민 (토트넘), 황의조 (삼바 오사카), 이재성 (홀슈타인 킬) 등에게 대표팀의 중추 역할을 맡기면서 대표팀의 세대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팀은 22일 볼리비아전을 치르고 나서 이튿날 오전 울산에서 회복훈련을 마친 뒤 23일 파주NFC에 다시 모여 콜롬비아전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